

News

시중은행, 달아오른 '상생경쟁'…“누가누가 착한금융 잘하나”

이데일리 <https://bit.ly/3ZXIDmF>

하나은행, 다자녀가구 적금에 대출금리 감면까지…상생 신호탄

우리은행, 소상공인 끌어안기…'연 최대 10%' 사장님 적금 '인기'

KB국민銀 알뜰폰 '리브엠' 승인 초읽기…신한銀 '땡겨요' 바람 불까

뉴스1 <https://bit.ly/3Up1IBb>

12일 금융위 정례회의서 심의…최저요금·쿼터제 등 세부항목만 남았단 평가

부수업무 허용 가능성에 은행들 추가 다른 업권 진출 가능성 저울질

중저신용대출 키운 인뱅, 주담대 고객은 '고신용자' 쓸림

서울경제 <https://bit.ly/3Uocp0W>

2월 차주 신용점수 평균 950점대, 5대 시중銀보다 50점이상 높아

중·저신용신용대출 확대와 대조, 카뱅, 평균금리는 6개월째 최저

자금쏠림 막는다…상호금융 '거액여신 한도' 관리 강화

연합뉴스 <https://bit.ly/3mkErh0>

금감원 '거액 여신 한도 관리 방안' 행정지도 1년 연장

금감원, "상호금융권의 거액 여신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 편중 여신의 위험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행정 지도를 연장하는 것"

'문턱은 낮게 보장은 높게'…보험업계 유병자보험 시장 확대

굿모닝경제 <https://bit.ly/3mssnLp>

삼성생명, 간편보험 가상 언더라이팅 도입…인수 가능 질병 확대

유병자 기준 세분화한 간편보험 출시…"유병자 보험 활성화 전망"

운전자보험 변호사비 보장 이제 5천만원으로

대한금융신문 <https://bit.ly/3KNWXIU>

이달 운전자보험 내 변호사선임비 특약의 보장한도가 대폭 축소될 전망

금융감독원이 운전자보험을 둘러싼 손해보험사들의 과열경쟁을 예의주시하자 보험사가 자정에 나서는 모습

증권사로 이동하는 자금…CMA 잔고 반년 만에 최대

뉴시스 <https://bit.ly/3KqEGA7>

증권사 종합자산관리계좌(CMA) 잔고가 64조원을 넘어서며 반년 만에 최대치 기록

은행 예금금리가 3%대로 떨어지면서 증권사 CMA 계좌로 자금이 몰림

6호 초대형IB 탄생하나…‘하나증권vs키움증권’ 각축

CEOScore <https://bit.ly/3zKNgo6>

하나증권, 최근 금감원에 신청서 접수…키움증권도 연내 신청 앞둬

금리인상기 발행어음 사업 매력적…새 먹거리 찾는 증권사 몰려들어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율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접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시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